

“내 삶의 스토리 작가가 되어라”

내가 누구인지 설명할 수 있을 때
존재감과 자존감 높아져

주어진 역할 연기하는 삶 아닌
나의 대본 갖고 자기 인생 살아야

의미 있는 목적 갖고 헌신하면서
자부심·탁월함 경험할 때 진정한 행복

“내 삶의 스토리를 찾고, 내 삶의 작가가 되어라.”

이창준 구루피플스 대표는 대한간호협회가 ‘진정성의 여정: 삶의 리더로 성장하기’ 주제로 실시한 간호역량강화교육에서 이 같은 화두를 던졌다.

이창준 대표는 “우리나라 직장인의 83%가 회사 우울증을 경험하며, 직장인 행복지수는 세계 하위권이고, 직장에 깊이 몰입하는 사람은 11% 정도라는 통계가 있다”면서 “몸은 직장에 있지만 마음은 떠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”라고 밝혔다.

이어 “왜 사는가? 왜 이 일을 하는가?”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외면하고, 냉소적으로 체념하며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”면서 “일을 즐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일이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”이라고 밝혔다.

특히 “일, 가정, 여가 등 내 삶의 다양한 영역을 통합해낼 수 있는 내 안의 내적 질서가 있어야 한다”면서 “그래야만 미래에 대한 비전과 지향점이 생긴다”고 설명했다.

다문화건강학회 총회 … 학회지 등재 주력



다문화건강학회 총회 … 학회지 등재 주력

지난 12월 16일 열고 2018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.

학회는 다문화건강학회지의 한국연구재단 등재 준비에 주력으로 했다. 학회지를 연 2회 발간하고, 징제고에 힘을 쏟기로 했다.

회원과 간호대학생으로 구성된 다문화관련 연합동아리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다. 학술대회를 연 2회 개최하고, 다문화 건강관련 세미나 및 연구사업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. 학회 홍보 및 회원 배가운동에 힘쓰기로 했다.

학술대회는 ‘북한의 보건의료와 다문화 간호’ 주제로 열렸다. ‘북한이탈주민의 건강문제와 관리’ 등의 주제강연이 진행됐다.

주제진 기자 hijoo@

소화기내시경간호학회 총회 … 임희혁 회장 선출



대한소화기내시경간호학회가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를 지난 12월 16일 열고 2018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.

새 회장에 임희혁 순천향대 서울병원 소화기병센터 수간호사(사진)가 취임했으며, 부회장(차기회장)에 황경화 서울성모병원 소화기센터 내시경실 차장이 선출됐다.

학회는 내시경업무 표준화를 위해 각종 매뉴얼 발간 등 출판사업에 주력으로 했다.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고, 내시경실 평가 등에 대비해 기아드라인을 정비키로 했다. 국내 유관학회 및 국제학회와 적극적으로 교류키로 했다. 학회의 비전과 미션은 재수집할 예정이다.

학술대회에서는 내시경검사 시 간호사의 역할, 병원의 지속적 질 향상 사례 등이 발표됐다. 내시경 세척소독 등 UCC 영상물을 관람했다.

주제진 기자 hijoo@

‘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’

‘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’